

김산호 회화극본 부처님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2화 룸비니 동산의 기적 ④



어느덧 싯다르타의 나이가 7살이 되었다. 이미 50을 바라보고 있는 슷도다나 라지는 이제 서둘러 관정식(灌頂式)을 거행하여 태자를 만천하에 선포해야만 하였다. 아시타 선인은 예언하기를 싯다르타는 장래 부처님이 되든 지 아니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라 하였으니 이번 관정식은 이 세계를 통치하게 될 위대한 대왕을 맞게 되는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다.

사카족의 왕성인 카필라바스투에는 이른 아침부터 온 백성들이 나서서 길거리를 청소했다. 누런 흙을 한길에 뿌려 덮고 성문 안팎에 곱게 물들이 비단에 봉황, 용, 코끼리, 호랑이 등 온갖 사물의 형태를 나타내는 번(幡)과 깃발(旗)을 만들어 진열하여 태자를 맞이하는 감동을 나타내었다.

이웃 나라의 임금님들도 그들의 대신들과 함께 카필라바스투성으로 모여들어 사카족의 이 감동적인 행사를 축하하

여 주었다. 가까이 있던 브라만(Brahman, 婆羅門)들도 태자(太子)의 행복한 장래를 기원하였다. 왕성 안의 모든 복이 일제히 울려 퍼졌고 광대들은 거리로 뛰어나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이 날의 관정식을 경축하였다.

스�도다나 라자(王)는 사해(四海)의 물을 보배 그릇에 담아 들고 싯다르타 왕자의 정수리에 붓고 7가지의 보석으로 장식된 인장(印章)을 싯다르타에게 내려주며 고타마 싯다르타(Gautama Siddhartha)왕자가 태자로 책봉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이제 싯다르타는 사카족의 장래를 책임져야 할 태자의 위치에 올랐다. 전륜성왕이 되어 위대한 사카족을 전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군림시켜야 할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공부를 하여 높은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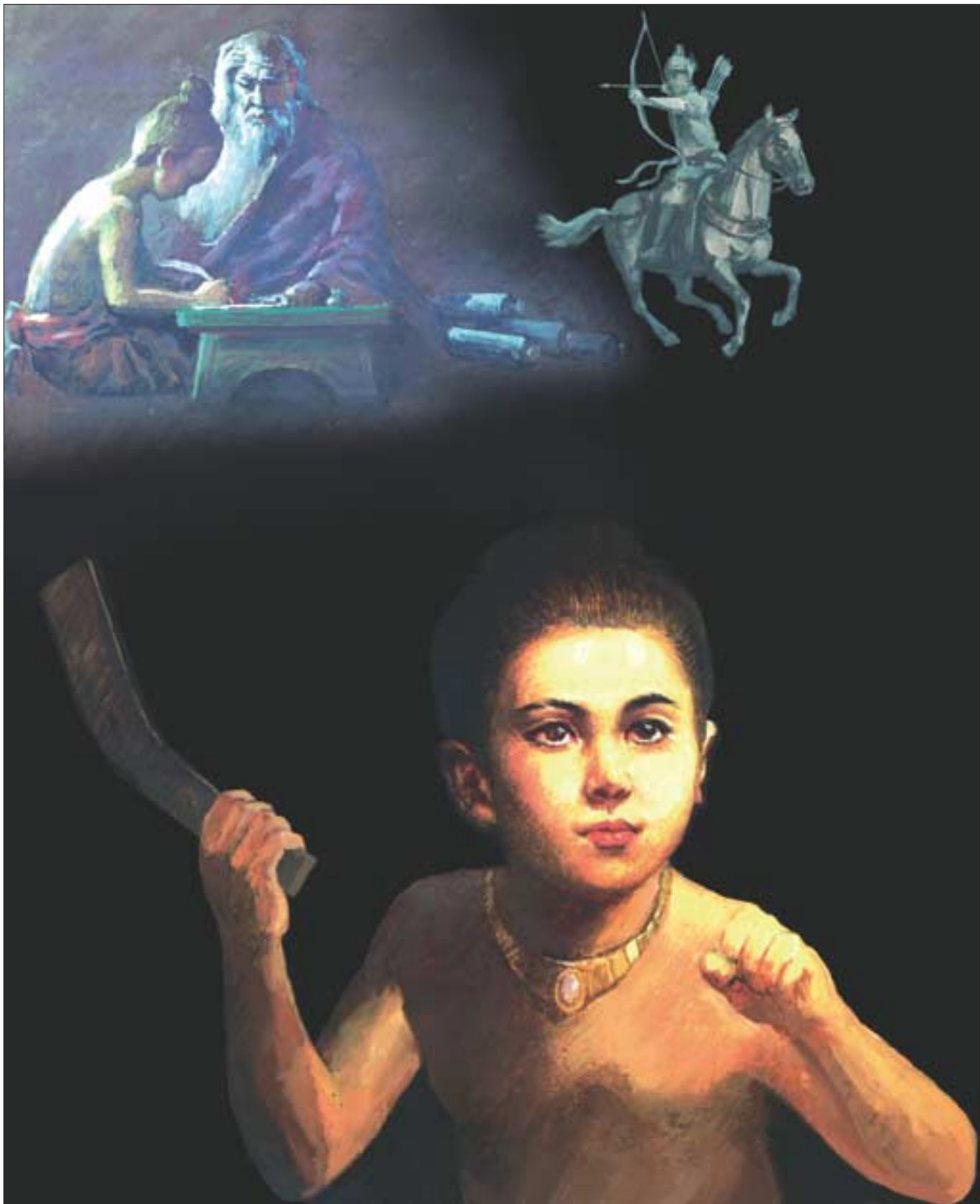
당시 카필라바스투성에는 '아르주나라'라 불리는 산수의 대가가 있었다. 태자는 그에게 산수를 배웠는데, 곧 태자의 실력이 선생을 능가해 버리고 말았다. 일곱 살이 되면 스승을 따라 공부를 한다는 것은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 계급 사회에 내려오는 전통이었다.

그다음, 태자에겐 비슈바미트라(毘奢蜜多)박사가 새로운 스승으로 임명되어 왔다. 태자는 그로부터 범서(梵書)와 4베다경전을 배우게 되었다. '베다경전'이라 함은 당시 인도의

카스트(Caste)중 최상위급인 브라만(Brahman)들만 접근이 허용되고 있던 리그베다(Rig-Veda)를 말하는 것으로 아리안(Aryan)족의 사상을 집대성한 성전(聖典)이 바로 그것이다. 싯다르타는 이민족의 성전을 일찍 공부함으로써 나중에 불교를 일으키는 사상적 기반을 이루게 되었다.

이 유명한 리그베다 성전에는 천지가 개벽하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우주의 경이로운 조화를 수많은 신(神)들과 결부시켜 설명하며 점성술을 비롯하여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법, 신을 찬미하는 노래, 그리고 전술법(戰術法)과 주술법(呪術法)까지 총망라하여 쓰여 있었다.

태자도 처음에는 브라만의 길을 걸었으나 차츰 새로운 진리(佛法)를 깨닫게 되고 베다의 계급차별을 부정하게 되면서 베다의 가르침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마침내 베다를 비롯한 모든 과목을 통달하게 된 싯다르타 태자는 마지막으로 수프라 붓다(Suprabuddha)의 아들로서 태자의 외삼촌인 크산티데바에게 장차 제왕으로서 필요한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활이나 칼 등 무기 다루는 법을 비롯하여 말이나 코끼리를 다루는 법, 전차를 타고 군사를 움직이는 용병술 등 제왕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모든 지식을 다 통달하게 되는데 태자 나이 12살때까지 모두 만 4년의 시간을 소요했다고 하였다. 태자가 얼마나 총명하였는지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다.

제왕으로서 알아야 할 모든 과목을 불과 12살의 어린 나이에 일찌감치 통달해 버리자 이에 놀란 슷도다나 라지는 궁전의 뒤뜰에 교련장을 만들어 놓고 태자의 사촌형이 되는 데바닷타(Devadatta)와 이복동생인 우타난다(Nanda)와 함께 지금까지 배운 이론을 실제로 실행해 보는 수련을 시켰다.

